

민선8기, 고양특례시가 만들어갈 행복한 변화는 고양시민의 작은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시민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민선8기를 향한 시민의 바람, 그리고 시민이 꿈꾸는 고양 이야기를 이곳에 담았다.

당신이 꿈꾸는 고양을 들려주세요



고양특례시=세계적인 매력 도시

김영순 (80대 / 일산동구 풍동)

민선8기가 시작된 후부터 두근두근 설렘니다. '고양특례시=세계적인 매력 도시'라는 공식이 머지 않은 시간에 현실이 될 것 같은 기대 때문입니다. 청년층,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이 모두 웃는 고양시를 만들어주세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매력 도시, 고양시'가 되기 위해 노년층이 참여할 일이 있다면, 저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고양 토박이 20대 청년입니다. 작년까지 행신에서 서울로 직장과 대학원을 오갔습니다. 고양시에서 버스나 지하철로 오랜 시간 등하교, 출퇴근하면서 느낀 점은 긴 배차간격으로 인한 불편함이었습니다. 고양시 안에서 또는 고양시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출근길이 여유로워지고, 저녁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가치 있는 고양특례시가 되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으로 삶의 여유를

박이슬 (20대 / 덕양구 행신동)



일자리와 문화 시설이 풍부한 고양

김정상 (40대 / 덕양구 향동동)

좋은 일자리는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단단한 뿌리입니다. 고양시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시민이 행복하게 일하며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 더 많은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은 풍부한 문화 인프라와 교육 시설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의 시작, 모든 도시가 부러워하는 고양시를 만들어가는 데 고양시민으로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는 섬세한 배려와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상 속 마주하는 크고 작은 고충에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부서져 흔들리거나 마모가 심해 교체가 필요한 보도블록을 자주 목격합니다. 또한 턱이 높아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동이 어려운 곳도 있으며, 생활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 시민의 불편함이 하나씩 해결되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김경섭 (50대 / 일산서구 일산동)



시니어가 함께하는 행복 고양

임명자 (70대 / 일산동구 풍동)



고양시에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노인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노인층을 위한 인프라와 복지가 잘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살아온 고양시는 노인이 살기에 참 좋은 도시입니다. 노인을 위한 제도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복지 또한 나날이 좋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시니어들이 살기 좋은 도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커가는 도시

김경란 (30대 / 덕양구 화정동)



아이 키우기 참 좋은 고양을 기대합니다. 8살 아이를 둔 엄마로서 고양시가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 등하교 시 더욱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도로 및 교통 환경이 조성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스포츠, 문화 체험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의 꿈나무들이 맘껏 웃고 뛰놀며 커나갈 수 있는 고양시가 되길 응원합니다!



고양은 소중한 터전

나경호 (40대 / 일산서구 일산동)



이곳에 와서 좋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고, 저와 제 가족은 더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하루는 따스함으로 가득합니다. 모두 고양으로 오세요! 오매불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